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4월 5일 부활주일성찬예배 설교입니다.

< 죽음을 이기는 힘 >

고린도전서 15:21~26 / 새찬송가 160장 (통일 150장) 무덤에 머물러

1.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인 죽고 사는 문제는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론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나 스스로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때문에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됩니다(고전15:21-26).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즉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또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신 것도 스스로 ‘살고 싶다’는 존재론적인 외침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해 달라’는 관계론적인 부탁입니다(눅23:46).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행2:23,24).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신 것입니다(고전15:15).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 범죄 했던 인류의 조상 아담과 관계하면서 사는 것이 됩니다(롬8:13). 이는 원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되기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하면 우리 죽을 몸도 반드시 살게 됩니다(롬8:11).

2. 오직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확실하게 다시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고 이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시고 살리셨습니다(엡2:4,5), (요6:54). 즉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힘 즉 사망을 이기는 힘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고전6:14).

관계란 존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주는 것이어서 사랑하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아담을 향해 나아가게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과 관계를 맺게 하고, 그 대상으로 향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힘은 그 방향을 통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는 주님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납니다. 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죽음을 이기는 힘을 맞아들이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만일 우리 영혼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세상을 향하게 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죽음을 이기는 힘을 등지게 될 것이며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은 최후의 원수를 이기는 힘입니다(고전15:25,26). 예수님은 모든 원수들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롬4:25).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통해 의롭다함과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인해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합시다(롬14:7,8),(딤후 2:11,12).

< 적용 & 실천 >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작은 부분이라도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온전히 우리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